

‘글로벌 표준 용어’로 의료 빅데이터 돕는다



정명길기자 jung01@etnews.com

복지부 ‘스노메드 씨티’ 도입 예산 확보
보건의료정보원서 세부 실행 업무 담당

“의료 고도화·상호 운용성 충족” 환영
10년간 개발 ‘코스튬’ 연계·활용 속제

정부가 의료 용어의 글로벌 표준을 도입해 의료 빅데이터 확산에 나선다. 정부가 세계 80여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임상용어 체계 ‘스노메드 씨티’(SNOMED CT) 라이선스를 직접 구매해 의료계에 공급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표준의료용어체계인 스노메드 씨티 라이선스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본격 적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출범한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이 스노메드 씨티 활용 등 세부 실행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의료용어체계 확립은 그동안 의료정보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 사업이다. 기존에도 한국의료표준용어(KOSTOM·코스튬)가 있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코스튬이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를 개념 단위로 정리하고 코드를 부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질병, 병균, 장비 등 의료 행위와 관련한 것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분류해야 하는 등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쌓기 어려웠다.

스노메드 씨티는 자동 매핑 기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분류 체계가 다양하다. 실제로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 행위에 따라 9가지 세부화된 질병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진은 자동 매핑되는 시스템을 선택하면 된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에 따라 어떤 약을 처방했

는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의료 행위 고도화가 가능하다. 이들 체계는 세계 80여개국이 활용하는 국제 표준으로, 국가 데이터 교환에도 용이하다.

박현에 대한의료정보학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기록하는 의료 행위는 다양한 수술 행위, 처방 등이 큰 단위로 묶여 있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스노메드 씨티는 다양한 영역의 용어를 구조화해서 입력할 뿐만 아니라 처방 단위까지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임상사도 의료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스노메드 씨티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내 대학병원 의사는 “현재 사용하는 의료 표준은 의료진이나 환자를 위한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 코드와 매칭돼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면서 “스노메드 씨티는 파생되는 콘텐츠를 트리 구조로 나타내 다변적으로 환자를 표현할 수 있고, 용어를 통일하지만 해도 상호 운용성이 상당 부분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기존 의료분류 표준은 임상적으로 쓰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스노메드 씨티 도입이 의료정보 표준화와 의료정보 교류 측면에서 발전이라고 본다”고 환영했다.

스노메드 씨티 도입으로 의료용어체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기 다른 의료 표준으로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10년 동안 개발·발전시켜 온 코스튬과의 연계·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라이선스를 구매해 임상병원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할 것인지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등 전문가 의견을 모아 활용 방안을 계획할 예정으로, 당장 국가 표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개발한 코스튬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 활용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공동취재



씨앰랩 ‘안과 레이저 의료기기’ 눈에 띄네 씨앰랩이 국내 최초로 안과 레이저 의료기기를 수출했다. 15일 서울 마포구 씨앰랩에서 직원들이 안 검진 플랫폼 아이조이와 안과용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 ‘코브라이트’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 ▶ 관련기사 11면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車·車 확산하는 ‘언택트 거래’

30대 직장인 김중원씨는 딜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중형 세단을 구매했다. 관련 서류 제출 등 계약부터 출고까지 모든 절차를 휴대폰으로 진행했다. 다른 서비스 없이 차량 대금에서 현금 할인을 받아 구매 만족도가 높았다.

이메일 견적 등 서류만으로 신차 구매 ‘공식 딜러 확인’ ‘출고 후 대금’ 주의 필요
중고차도 활발...품질 보증으로 신뢰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자동차 시장에서도 딜러를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언택트(비대면)’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다수 자동차 업체가 공식 비대면 채널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 요구가 크게 늘면서 일선 딜러들이 비공식 비대면 거래에 나섰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판매 방식을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

완성차 A사 대리점 딜러는 15일 “최근 전시장 방문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나는 고객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본사 방침상 대면 계약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만나지 않고 계약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훨씬 높아졌다”고 전했다.

비대면 거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딜러는 휴대폰으로 문의가 오면 이메일로 견적을 보내 계약을 진행, 더 많은 고객에게 빠르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은 더 쉽고 편리하게 여러 딜러에게 자신이 원하는 구매 조건을 흥정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신차를 구매한 한 고객은 “지인이 소개한 딜러에게 휴대폰 문자로 차량을 문의한 후 이메일로 견적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대면 거래보다 원하는 조건을 딜러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소속된 공식 딜러인지 꼭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계약금을 걸고 차량을 출고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안전하다.

본사가 공식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는 사례도 늘었다. 르노삼성차는 신차 XM3를 출시하면서 완성차업체 최초로 온라인 청약 채널을 구축했다. 웹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로 청약금 10만원을 결제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나머지 출고 과정은 딜러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입차업체는 비대면 거래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프는 홈페이지 내 비대면 구매 전용 채널을 열고 온라인으로 구매 상담부터 시승 신청, 계약서 작성, 출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BMW도 온라인 자동차 판매 채널을 개설, 소장 가치가 큰 한정판 모델을 전국 어디서나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차량을 보고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졌다. 직영 중고차 케이카가 제공하는 내차사기 흡서비스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할부 대출 심사와 승인까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다. 케이카 관계자는 “까다로운 진단과 매입을 통해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집에서 직영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오늘의 CEO

조광원 비투엔 대표

코로나19 대응 ‘공공데이터’ 진가

5일 만에 ‘공적마스크 실시간 재고’ 서비스
업계, 데이터 개방 넘어 품질 확보 노력해야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공적마스크 실시간 재고확인 서비스’처럼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은 적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 추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관리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조광원 비투엔 대표는 20년 넘게 데이터업계에 종사한 전문가이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초대 회장으로, 업계를 이끄는 대표 인물이다. 조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느 때보다 빛났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15일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조차 못했는데 우리는 공적 마스크 제공 결정이 이뤄진 후 5일 만에 실시간 재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및 일반인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대표는 “2013년 공공데이터 법을 제정할 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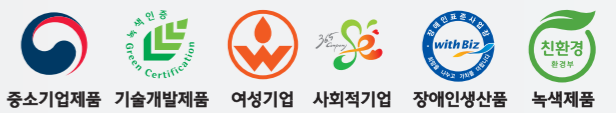
난해까지 체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에 접근·이용하는 생태계를 마련했다”면서 “단순 개방뿐만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개방에 주력한 덕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 국민이나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 데이터는 개방뿐만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중앙부처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를 시작했다. 조 대표는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면서 “세계적 데이터 품질 구루인 리처드 왕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도 데이터품질 평가로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이 한국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높인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업계 숙원인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조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 기업도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져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수요는 폭증할 것”이라면서 “데이터 3법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위해 공공, 민간 모두 데이터 품질 제고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기관경영평가 최대가점 획득



품질, 서비스, 성능, 디자인 모두 만족하고 싶다면
컴트리 컴퓨터가 정답입니다!



최상의 선택 컴트리 보안PC 시리즈 / 데스크톱 시리즈 / 모니터 시리즈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30, 17층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0차
www.comtree.kr 제품 및 기술문의 : 02. 858. 4582 (내선 : 2번, 영업본부)